

이공계 학생의 글쓰기 인식 조사¹⁾

1. 서론

서울대학교는 글쓰기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글쓰기 관련 강좌를 개설하는 등 글쓰기 교육 제도를 개편하였다. 현재 기초교육원에서는 기초 및 학술적 글쓰기 교육을 위한 <대학국어>와 학술적 글쓰기 교육을 위한 <글쓰기 교과목> 강좌를 개설하고 있으며, 글쓰기 과제를 중시하는 <핵심교양 교과목>에 A형 강의조교를 지원함으로써 수강생들의 글쓰기 지도를 담당토록 하고 있다. 그밖에 일부 학과에서는 자체적으로 학부나 대학원 과정에 글쓰기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교수학습개발센터 글쓰기교실에서는 비교과과정으로 글쓰기 대면 상담을 비롯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공계열을 비롯한 모든 학생들이 <대학국어>를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하며, 특히 공과대학의 경우 재학생들에게 <글쓰기 교과목> 중 <과학과 기술 글쓰기>를 필수적으로 수강하게 하는 등, 서울대학교에서는 이공계 학생을 위한 글쓰기 교육도 중시되고 있다.

그러나 교양과목 등으로 개설되어 있는 인문사회계 강좌를 수강하는 이공계 학생 중 적지 않은 비율이 글쓰기와 관련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인문사회계열 강좌를 수강하는 이공계열 학생들은 자신의 전공과는 관련이 적다하더라도 지적인 호기심 때문에 혹은 지성인으로서 지녀야 할 교양의 확보를 위해 해당 과목 강좌를 신청하게 된다. 그러나 인문사회계열 과목에서 강조하는 연구의 방법, 해당 과목에서 부여되는 과제 및 시험, 수업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배경 지식의 차이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많은 이공계열 학생들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는다. 이에 본 연구는 특히 인문사회계 강좌를 수강하는 이공계열 학생들이 글쓰기 활동에서 직면하는 문제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사

이수형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
글쓰기교실 연구교수

1) 본고는 인문사회계 과목을 수강하는 이공계 학생의 글쓰기 현황 조사를 위한 연구 중 글쓰기 인식 부분을 요약한 것이다.

전 조사를 위해 계획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인문사회계열 과목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 이공계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심층 면담 및 좌담을 통해 글쓰기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우선 심층 면담에서 활용할 질문 항목을 추리고 적절한 질문지를 구성하기 위해 두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수행하였다. 정해진 질문지 없이 인문사회계열 수강 경험, 수강 당시에서 느꼈던 어려움, 해당 과목 수업에서 요구되었던 글쓰기 과제, 과제 수행에서의 어려움 등 광범위한 주제에 대한 학생들의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다음으로 확정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여덟 명의 이공계열 학생과 각각 개별 면담을 수행하였다. 심층 면담 결과를 검토하여 답변이 미진한 내용,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는 내용, 반대로 다른 학생들과는 차이를 보이는 답변을 한 내용 등을 확인하였다. 심층 면담 결과를 정리한 것을 토대로 다시 면담에 참여했던 학생들을 한 자리에 모아 좌담회를 개최하여 개별 면담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심층 면담 결과와 좌담 당시 나온 학생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해석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론에서는 글쓰기에 대한 이공계 학생들의 기본적인 인식을 크게 전반적인 글쓰기 영역에 대한 인식과 대학 글쓰기에 대한 인식, 그리고 글쓰기의 윤리성에 대한 인식으로 나누어 고찰해보고자 한다.

2. 이공계 학생들의 글쓰기에 대한 인식

2.1. 글쓰기 영역 전반에 대한 경험과 인식

본론에서는 이공계 학생들이 글쓰기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가를 세 가지 층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는 글쓰기라는 행위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대학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이공계열 강좌와 인문사회계열 강좌에서 요구하는 글쓰기의 차이점에 대한 인식, 마지막으로 글쓰기의 윤리성 문제와 관련한 인식이 해당된다. 이렇게 층위를 세분화한 까닭은 이공계열 학생들이 생각하는 “글쓰기”의 층위가 간단하지 않을뿐더러 실제로 인터뷰를 진행해 본 결과 단순히 “글쓰기”라고 단번에 묶어서 포괄할 수 없는 복잡한 부분들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우선 이공계열 학생들은 비록 자신의 전공과는 관련이 없더라도 글쓰기라는 행위 자체에 대한 중요성은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 글쓰기 경험은 중학교 시절 이후 단절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이과를 선택한

이후에는 특기할만한 글쓰기 경험이 전무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인터뷰 중간 중간에 중학교 때까지는 글쓰기에 대해 특별히 어려움이 없었고 자신이 글쓰기를 못한다는 생각이 없었는데 대학에 입학한 뒤로 글쓰기에 대한 자신감이 더 없어졌다는 의견도 있었다.

특히 본격적인 대학 수업에서 글쓰기 과제를 경험하면서 자신의 글쓰기 실력에 대한 회의가 시작되었다고 말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지적인 이유가 있었다. 첫 번째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시작된 글쓰기 경험의 단절이다. 이과생으로서 고등학교 재학 중에는 본격적으로 글을 써 볼 경험이 거의 없었다는 이야기들이 반복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과를 선택함으로써 인문사회과학적 배경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졌기 때문이라는 자기분석이 있었다.

이러한 글쓰기 경험의 단절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특히 글쓰기를 잘하고 싶다는 생각, 또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글쓰기 능력이 꽤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동시에 “글쓰기”를 단지 문자를 쓰거나 기록하는 행위가 아니라, 실생활에서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 자기표현 방식이며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양식임을 전제하고 있었다.

그러나 글쓰기 능력의 중요성이나 발전 여부에 대해서는 꽤 큰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막상 글쓰기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신문을 읽거나 틈틈이 독서를 한다고 대답한 학생들도 있었으나 이 역시 주의를 기울여 일정 강도 이상의 특별한 노력을 기울인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즉, 요약하자면 이공계열 학생들의 경우 대개 대학 입학 이전의 글쓰기 경험도 없을 뿐더러 글쓰기를 위한 배경 지식 역시 부족한 형편이다. 게다가 추상적인 차원에서 글쓰기의 중요성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으나 실제적인 글쓰기 연습이나 노력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2.2. 이공계열 글쓰기와 인문사회계열 글쓰기의 차이점에 대한 인식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공계열 학생들은 스스로 글쓰기가 취약하다고 말하며 글쓰기 전반에 대한 자신감 부족을 드러내기도 하는데 이는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글쓰기에 대해 더 강하게 드러났다. 동시에 흥미로운 지점은 학생들이 이공계열 글쓰기와 인문사회계열 글쓰기를 명확하게 구분 짓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특히 자신들이 인문사회대학생들에 비해 글쓰기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며 이는 인문사회계열 강의에 대한 이해도나 지적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공계열 학생들의 자기 진단에 따르면 이는 인문사회 관련 배경지식의 부족, 그리고 상대적으로 글 쓸 기회가 적은

이공계열 학생들의 여건, 그리고 이공계열 글쓰기와 인문사회계열 글쓰기가 기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종합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은 이공계 수업에서 요구하는 글쓰기와 인문사회계 수업에서 요구하는 글쓰기의 차이점을 강조하는데, 학생들이 느끼는 차이점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공계 수업에서의 글쓰기는 글을 기술하는 능력보다는 실험값에 대한 분석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으나 인문사회계 수업의 글쓰기는 글의 주제를 선정하고 글을 조직해나가는 과정 자체가 평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부담감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이공계열 글쓰기와 인문사회계열 글쓰기의 과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인문사회계열 글쓰기의 경우 자료를 찾고 선별하는 데에서부터 막막함을 느낀다고 호소하기도 한다.

이공계열 학생들은 인문사회계열 글쓰기를 이공계열 글쓰기와 확연하게 구분 지으면서 글쓰기 과정 자체에서 수행해야 하는 과업들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본격적인 글쓰기 이전의 작업들에 대해서는 주제 선정, 자료 찾기, 연구사 검토 등의 일들에 대해 어려움을 이야기하였고, 본격적인 글쓰기에 있어서는 문장력의 부족 등을 지적하였다.

2.3. 글쓰기의 윤리성에 대한 인식

앞에서 살펴보았듯 이공계열 학생들은 인문사회계열 수업의 글쓰기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인터뷰에 참여한 학생들은 같은 전공의 다른 학생들 중에서는 글쓰기 과제가 많은 수업의 경우에는 애초에 수강 신청을 하지 않거나 피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혹시 이러한 글쓰기에 대한 부담을 피하기 위해 표절에 대한 유혹을 느낀 적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 인터뷰에서 이어졌다. 이는 글쓰기의 윤리성과도 밀접하게 관계되는 문제이므로 한번쯤 검토하고 넘어가야 하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이는 학생들이 글쓰기라는 것이 한 개인의 독창적인 창작물임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가, 또한 대학에서의 글쓰기를 개인의 주장과 논리를 담은 학술적 글쓰기로서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가와 결부된 문제이기도 하다. 자신의 글쓰기에 대해 어느 정도의 윤리성을 지키느냐의 문제는 글쓰기라는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학생들이 표절을 하게 되는 이유가 대개 글쓰기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글쓰기 과정의 어떤 부분에서 표절의 유혹을 느끼는지를 분석할 경우 의외의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인터뷰 결과 표절의 유혹을 받기는 하지만 표절을 한 적은 없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으나 일부는 표절의

경험이 있으며 주변 친구들도 표절을 한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즉, 대부분의 학생들이 우선 표절에 대한 유혹을 느끼는 것은 공통적이라는 이야기이다.

표절의 이유로는 일단 해당 과제에서 요구하는 글쓰기 분량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경우를 꼽을 수 있다. 자기 힘으로 요구된 분량만큼 글을 작성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채우지 못한 남은 부분을 표절한다는 것이다. 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미흡함을 느끼고 이를 다른 이의 주장으로 대체하거나 보충했다는 경험담도 있었다.

예를 들어 서평 과제를 할 때 줄거리를 요약하는 정도는 표절이 아닌 줄 알고 타인의 블로그에서 그대로 가져왔다는 식의 언급을 보면 주체적인 글쓰기에 대한 개념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표절에 대한 유혹을 느끼거나 실제로 표절을 한 경험이 있다는 학생들의 언급을 통해 글쓰기 과정에 대한 부담을 무분별한 인용으로 해소하려 하거나 주체적인 글쓰기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3. 결론

본 연구는 인문사회계 강좌를 수강하는 이공계 학생들이 글쓰기 활동에서 직면하는 문제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개별 심층 면담과 좌담을 통해 이공계 학생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조사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방향에 대해 살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공계 학생들의 글쓰기 인식을 글쓰기 영역 전반에 대한 인식과 대학 글쓰기 영역에 대한 인식, 그리고 글쓰기 윤리성에 대한 인식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학생들은 글쓰기에 대한 중요성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으나 이를 실제적인 연습이나 노력으로 연결 짓지는 못하고 있으며, 이공계열 글쓰기와 인문사회계열 글쓰기를 분리하면서 자신들이 인문사회계열 글쓰기에 특별히 취약한 원인들을 스스로 분석하고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글쓰기 윤리에 대한 인식에서는 주로 학생들이 표절의 유혹을 느끼는 이유가 글쓰기 작업 자체에 대한 부담감과 자신 없음임이 나타났다.